

### 3/2(수) 여호수아 6-8장 독특한 전쟁

요단을 건너 치르는 첫 번째 전투.

그런데 전쟁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술을 명하십니다(6:2).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정하신 방식대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불만과 두려움, 부정의 목소리가 점점 진영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감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됩니다.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일, 7바퀴.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와 새로운 창조가

오염된 땅 가나안, 거룩한 전쟁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후의 전투는 무기와 매복, 보통의 전쟁과 같습니다.

유독 첫 전투를 <제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치르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천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스라엘은 죄와 폭력, 교만과 욕망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는다면 그 땅은 정말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2/24, 전쟁과 질서 참고).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이유와 이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 성 전투> 같은 불순종과 일탈이 반복된다면(7장)

이스라엘은 가나안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① 선점과 승리를 위해 기민하고 악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② 이익과 소유를 보고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까?**